

2025 새해 이렇게

# “시민 자치역량 키우는데 힘 쏟을 것”

박병규 광산구청장

은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고교 신설·치매 환자 지원



폭도 넓히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매출 증대를 소비자는 가계 부담 경감이 되도록 골목형 상점가와 은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병행 등을 실시해 경제 주체를 보호하고 사회적 대화로 경제역신의 전환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외 함께 촘촘한 복지혁신도 놓치지

지 않겠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황룡강생태길 30이 광주의 자랑으로 평가받도록 완성도를 높이고, 고등학교 신설,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가능성 등 광산의 교육 숙원이 해소되는 기회를 잘 활용해 문화와 교육의 꽃이 만개하는 광산을 만들겠습니다.

자율방범,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여성 1인가구 안심 홈 세트 지원 등으로 안전 체감도를 올리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치매환자와 가족 지원사업도 이어가겠습니다.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기준을 민간공향 기준인 75데클로 낮춰 불합리한 보상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자원순환 프로그램, 다회용기 사용 확산 등에 시민이 손쉽게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2030년을 대비한 기후위기 대응책도 수립해 실행하겠습니다. 오직 주권자인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의 참여로 구체적인 성과를 일구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리=최승렬 기자 srchoi@

## ‘추억의 충장축제’ 올해는 어떻게... 동구, 축제위원회 전체 회의



광주시 동구청 상황실에서 열린 '22일 2025년 제1차 추억의충장축제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들이 축제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제22회 충장축제를 추석 연휴(10월 5~8일) 이후인 10월 셋째 주에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시 동구 제공)

## 동구 東네라이프, 관광플랫폼 ‘광주아트패스’서 만난다

생활관광 프로그램 새단장  
31일까지 신규고객 이벤트

광주시 동구가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동구는 일정 기간 동구에 체류하며 ‘광주동구다움’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인 광주 동구 ‘동(東)네라이프’를 광주 스마트관광 플랫폼인 ‘광주아트패스’에서 새롭게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동네라이프는 2박 이상 광주 동구에 숙박을 예약하고 머물 때 1박당 최대 30% (2만원 한도 내) 할인에 지원하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까지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운영됐지만 광주 관광플랫폼 일원화 및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광주아트패스’에서 운영하게 됐다. 동네라이프 할인에 참여한 숙박업소는 지난해 동구와 관광활성화 MOU를 맺은 동구 소재 관광호텔(호텔아트하임,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 무등파크호텔, 컬쳐호텔 람 등) 및 산수 여로, 동명한옥 좋은날, 컬쳐호텔 람, 장미옥, 유유한, 오아시타, 비즈니스호텔 등 11곳에 달한다. 동구는 동네라이프 프로그램의 광주 아트패스 플랫폼 통합 기점으로 오는 31일까지 신규 회원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치킨 100마리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 동네라이프 새단장 오픈을 기념해 광주아트패스 숙박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단에 선정된 여행객은 광주 동구의 숙소와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함께 즐기고 광주 동구 여행 알리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올해 광주 동구는 스마트관광플랫폼인 광주아트패스를 필두로 모든 관광 요소를 집약해 선보일 예정이다”면서 “관광객들께서는 동구에 머물며 미식 관광, 골목 투어 등 오직 광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남구, 설 연휴 보건소·농촌지역 진료소 비상 진료

당직 약국도 운영

설연휴 기간 지역민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남구가 대책을 마련했다. 21일 남구에 따르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와 진료소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해당 날짜별로 문을 연다. 광주시 남구는 설 연휴 빈틈없는 의료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구청 보건소와 농촌지역에 있는 진료소 2곳에서 비상 진료에 나선 것이다. 또 관내 소재 약국을 대상으로 당직 약국도 운영한다. 먼저 화장 진료소와 구소 진료소는 병원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진

료를 위해 오는 28일과 30일에 각각 진료에 나선다. 진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진료소장이 진료소에 상주해 증상이 가벼운 외래환자를 중심으로 진료에 나선다. 남구 보건소는 오는 설 당일인 29일 하루 동안 비상 진료를 시행한다. 진료를 받고자 하는 외래환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구청 5층을 방문하면 된다. 설 연휴 기간에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남구내 약국은 115곳이다. 약국별 문을 여는 날짜는 각각 다르다. 급하게 약국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약국과 병의원 비상 진료 현황을 안내하는 E-GEN

통합 홈페이지(www.e-gen.or.kr)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공지사항을 통해 운영 날짜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남구는 식중독 예방·관리 차원에서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식중독 발생시 확산 차단과 역학조사를 위해 조사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관내 위생 취약지역 90곳을 대상으로 유충 서식지 제거와 유충 구제제 투여 등 소독 작업을 진행하며,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혜원 기자 hey1@

## 서구, ‘착한 소비 선결제’로 골목상권 활성화

광주시 서구가 선결제를 이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탠다. 서구는 골목상권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착한 소비 선결제’로 서구 관내에 1억원을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서구 음식점과 카페 등 소상공인 업소

에서 1인당 10만원씩 사용하는 ‘착한 소비 선결제’ 릴레이를 시작한 것이다. 서구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문화체험비 중 10만원을 서구 관내에서 의무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와 골목경제 회복을 꾀할 예정이다. 특히 서구는 2월까지 공무원 1000여

명이 10만원씩 총 1억원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공공 일어붙은 소비심리를 해소하고 경제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릴레이 첫 주자로 나선 김 정장은 이날 오후 치평동 한 상가에서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다음 주자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서구는 앞으로 한달 여 간 직원들의 착한 소비 선결제 릴레이 캠페인을 집중 진행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 북구,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 회복 총력

지역상품권 발행·소상공인 신성장 지원센터 등 4개 시책

광주시 북구는 일어붙은 지역경제의 부양책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2일 밝혔다. 북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 회복을 위해 올 한해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신성장 지원센터 조성’, ‘AI 소상공인 지원시스템 구축’, ‘골목형 상점가 맞춤형 컨설팅 및 브랜드 개발 지원’ 등 4개의 중점 시책을 내놨다. 먼저 지역화폐의 일환인 ‘북구사랑상품권(가칭)’을 연내 발행해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따른 민생 회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북구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지난해 제정한 조례를 바탕으로 올해 2월부터 TF팀(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가와 주민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품권 발행 방식, 규모, 할인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 및 결정하여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 나갈 예정이다. 또 지난해 정부 주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와 지방비 총 12억 5000만원을 투입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신안동에 위치한 태봉 생활체육관 유휴 공간을 코워킹스페이스, 미디어작업실, 시장매니저 사무실 등을 갖춘 ‘소상공인 신성장 지원센터’로 탈

바꿈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삼아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강연, 체험,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AI 기반 소상공인 통합 지원시스템’ 개발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지원사업을 원스톱으로 접수·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접수창구’ 구축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들과 실시간으로 상담 및 소통하는 ‘양방향 AI 챗봇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골목형 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맞춤형 컨설팅과 골목형 상점가의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wilo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